

## 반(半)주변부국가 언어의 경계 넘기

: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육수현\*\*

### I. 서론

#### 1. 연구 목적

2015년 기준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는 4,240건, 증액된 자본은 378억 4,000만 달러로 베트남 내 외국투자국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BAO XAY DUNG 2015/03/18). 한류 역시 초기부터 영향이 남달랐고, 현재는 K-pop을 중심으로 드라마 진출에 이어 한류의 증흥을 이끌고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K-pop을 즐기고, 시간 많고 돈 있는 여성이 많다(Van, 여, 38세)”는 인식이 있다. “한국어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된다”거나 “한국어를 전공하면 영어를 전공한 사람보다 초봉이 거의 두 배가 된다(Vinh, 여, 28세)”식의 말도 회자되고 있다. 어떠한 계기로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건 한국어 구사자(speaker)<sup>1)</sup>는 장차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 믿으

\* 이 연구는 한국동남아학회가 주관한 ‘2012 한-아세안 학자-학생 교류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breeze284@daum.net)

1) 이 연구에서 ‘한국어 구사자(speaker)’는 전공·부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

며 한국어 배우기를 선택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및 경제적인 이유가 베트남 내에서 많은 한국어 구사자가 생겨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한우 2007; 샤키아 2014; 응웬 티 레나 2014 등).

현재 베트남 내 15개 대학에 한국학·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파악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대학부설 및 사설어학원 수만 해도 21곳이 넘는다. 한국 기업 진출이 많았던 남부에 이어 북부에도 한국학·한국어과 신설 및 중·소규모 사설학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응시율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이며, 2015년부터 해외에서 연 2회 시행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베트남에서만 연4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혹자는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인기를 얻는 현상을 한국어 세계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의견상으로 한국어의 국외 진출은 장밋빛 미래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중반부터 논의된 한국어 세계화와 공통어(lingua franca)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민현식 2005; 박영순 2007)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다양한 언어가 습득·활용되는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어 구사자와 한국어 학습 공간을 한국어 국제화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현상으로 단정 짓기엔 어렵다. 더군다나 “운명 같은 한국어(Ngoc, 여, 29세)”를 배운 베트남인 한국어 구사자 스스로가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한국어가 인기가 있고, 취업이 잘되지만,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어보다 영향력이 적은 언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위계를 정하기까지 한다. 한국어를 습득한 베트남 사람조차 한국어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점은 베트남에서 관찰되는 한국어 학습 열풍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

람,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한국어 교원, 한국어를 활용해 직장을 얻고 일을 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일 수 없게 한다.

또한 개혁개방(Đổi Mới, 쇄신: 巒贗)정책 이후 베트남에는 한국 이외에도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미국, 홍콩 등과 같은 거대 투자국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에 미치는 이들 국가의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베트남에는 역사적 연결점이 있는 프랑스어와 중국어(Pham Minh Hac 1995; 김진수 2003; Nguyen Thien Giap 2006 등),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학습되어진 러시아어(Ngan Nguyen 2012),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퍼진 영어(Denham 1992; Le Ngoc Tra 2008; Ngan Nguyen 2012) 등 다양한 외국어가 저마다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가 베트남 내에서 인기 있는 외국어 반열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어 구사자는 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가? 다양한 외국어가 활용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베트남인에게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 여러 연구와 정부기관의 전망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어 인기가 한국어의 세계 공통어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어의 유행, 베트남 사람이 생각하는 한국어의 의미와 한국어의 언어적 위계 등을 한국어 구사자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경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어의 유행이 세계화가 만들어 낸 언어적 위계를 벗어나 한국어가 프랑스어나 중국어처럼 ‘초중심적 언어(칼베 1999: 40)’와 같은 ‘국제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구한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어가 베트남사람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통시적 관점으로 원인과 배경 차원에서 알아본다(3장). 둘째,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의 특성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베트남 구사자가 생각하는 한국어 습득 동기와 목적, 한국어 습득의 이미지 등을 살펴본다(4장).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사람이 한국어를 배우

게 되는 이유와 의미를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어 습득의 양면성에 언어 간 위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고찰해본다(5장).

## 2. 연구 과정 및 대상

이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수행한 현지조사(fieldwork)를 바탕으로 한다. 현지조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어 구사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장(field)(예를 들어, 학교, 학원, 식당, 회사, 동아리, 한·베 문화행사 등)에 대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및 비참여관찰(non-participant observation)을 하였다.

둘째, 심층면담이다. 연구자는 사설어학원 및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의를 하며 한국어 구사자를 교원, 학생(전공과 비전공), 회사원, 공장 직원, 한·베가정(베트남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 예비 이주 노동자와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면담자를 선별하여 심층면담 하였다. 면담은 면담자 별로 1~2회 심층 면담을 진행하거나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또한 베트남 내 한국학·한국어과가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과 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학과에 대한 현황 및 정보를 수집하였다.

총 면접 대상자는 112 명이다.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례 제보자는 총 23명으로 한국어교원, 한국어 전공 및 비전공 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례 제보자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사례 제보자 특징

이름 가명	성별	나 이	입학 시기	최종학력 (전공여부)	직업	면담 일자	특이사항
Hong	여	1992	2010	대학 재학	現 유학생	13.7.23	-
Minh	남	1979	1997	대학원수료	교수	13.7.29	한국 유학 경험 유
Thuy	여	1976	1994	대학원재학	교수 어학원 원장	13.7.17	한국 유학 경험 유
Van	여	1977	1995	대졸	교수	13.8.7	한국 어학연수 경험 유
Hung	남	1991	2009	대졸	한국 회사 직원	13.10.19	한국 교환학생 경험 유
Thanh	남	1992	2010	대학 재학	대학생	14.1.9	베트남 중남부 대학교 재학
Dung	여	1993	2011	대학 재학	대학생	13.10.28	베트남 중부 대학교 재학
Linh	여	1980	1998	박사	교수	13.11.15	한국 대학에서 박사 취득
Viet	남	1992	2010	대학 재학	대학생	13.10.25	베트남 중부 대학교 재학
Ngan	여	1992	2010	대학 재학	대학생	13.10.25	베트남 중부 대학교 재학
Thuong	여	1982	2001	대졸	한국학과 교수	13.11.15	한국 유학 경험 유
Nam	남	1986	2012	대학 재학	대학생	13.10.25	베트남 중부 대학교 재학
Long	남	1992	2010	대학 재학	대학생	13.10.25	베트남 중부 대학교 재학
Vinh	여	1987	2005	대졸	한국 회사 직원	13.7.9	한국 교환학생 경험 유
Ngoc	여	1986	2004	대졸	한국 은행 직원	14.4.20	한국 교환학생 경험 유
Trang	여	1988	2009	대졸	前한국 회사 직원 現 유학생	13.7.17	한국 대학에서 석사과정
Hien	여	1989	2007	대졸	前한국 회사 직원 現 유학생	13.7.14	-
Anh	여	1988	2006	대졸	프리랜서 통역	14.6.	영어 어학연수 후 프리랜서 로 활동 하면서 구직 중
Lan	여	1981	2000	대졸	前 어학원 강사 프리랜서	13.12.7	한국 회사보다 베트남 회사 에서 더 오래 근무
Tra	여	1994	-	대학 재학 (비전공)	대학생	13.7.30	어학원에서 한국어 학습
Tuyen	여	1992	-	대학 재학 (비전공)	대학생	13.7.9	어학원에서 한국어 학습
Ly	여	1991	-	대학 재학 (비전공)	대학생	13.8.1	어학원에서 한국어 학습 프랑스에서 유학 중
Lien	여	1983	-	고졸	한국 공장 통역	13.7.10	2002년부터 한국어 배움

\* 제보자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 면담 일자는 처음 만났던 날짜를 기입하였다.

## II. 언어 전파와 위계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세계화를 반대하면서 소수 언어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언어를 도구적 측면에서 이해하며, 언어에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지 않을뿐더러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Holborow 1999: 193).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사용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잠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처럼 ‘영어를 사용하는(English-speaking)’ 나라에서 실제로 그러한 권력을 가진 언어 사용자는 소수임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유럽의 언어만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고 믿는다(Philipson 2000: 129).”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언어 간의 위계(hierarchy)구조는 탈식민지 시대에도 더욱 중층적인 형태로 이어졌다. 칼베(1999)의 ‘중력 모델’은 현대 언어 간의 중층적 위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는 ‘초중심적’(Supercentrale) 언어이다. 프랑스 외에 사용되는 언어(이 언어 화자들은 프랑스어도 자주 사용한다)는 한 국가나 민족의 주요언어로서 ‘중심(Centrale)언어’이며, 중심언어 주위를 맴도는 언어는 ‘주변(Peripherique)언어’이다.(칼베 1999: 40). 언어의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언어는 광중심적(Hyper centrale)언어이며, 대표적인 것이 영어다.

드 스완(de Swaan 2001) 역시 “언어 순위의 정치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언어사용자의 비율과 언어 집단에서 다른 언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 사용자의 수를 기초로 세계의 언어를 ‘중심어’(100~200여개), ‘초중심어’(10여개), ‘광중심어’(1개), ‘주변어’(400~500여개)로 분류한다(로스 2009: 8). 중심어는 국민국가의 표준화된 언어로 한국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초중심어는 중심어의

사용자를 연결하는 언어로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힌디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스와힐리어, 포르투갈어 등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언어는 사용 인구수가 적어 주변어로 분류된다.

한국어의 해외진출을 다루는 연구들을 보면 우선 한국어를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배우는지 보여주면서 한국어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하인숙 2009; 최인나 2010; 김명권 2011; 심상민 2011; 안여경 2011; 양지선 2012; 송향근 2013 등). 또한 갈수록 확산되는 한류 현실과 함께 한국어의 세계화 가능성과 세계화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김희숙 2001; 민현식 2005; 전성운 2008; 로스 2009).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중심어인 한국어가 초중심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깔고 있다.

세계체계에서 중심부, 반(半)주변부, 주변부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는 변함이 없으나 구조를 채우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경쟁을 통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다(월러스틴 2005). 언어위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어의 계층적 구조는 변함이 없지만 한 언어가 접하는 지위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는 중심어이지만 한류 영향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당수 한국어학자들은 세계의 언어위계에서 한국어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박영순(2010: 15-17)은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미국 SAT시험 한국어 채택률과 한국어 사용 인구수, 한국의 경제규모 등을 통해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어의 중요도가 전 세계 10위 내에 진입해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성운(2008: 169)은 한국어가 지닌 “사용가치(use value) 대비 교환가치(exchange value)<sup>2)</sup>의 국지성”으로 인해 미

2) 시장원리에 의하면 언어에도 가치가 있다. 사용가치는 무한하고 아주 기본적인 가치로, 모국어처럼 의사소통에서 아주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언어의 가치이

문화권 내의 한국어 영향력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 비율이 높고 욕구가 강한 나라 중 유럽이나 영미권은 제외되어 있다(로스 2009: 20).

칼베(2000: 47)에 따르면 세계화의 영향으로 소규모의 언어공동체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중간계층의 언어가 초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언어의 지위변화는 세계체제(윌러스틴 2005)에서의 국가의 위상, 언어와 시장과의 관계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위상은 해당 국가 내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어떤 교환가치로 활용되고 있는지 언어사용 주체의 시선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에서 한국어 구사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수용하면서 여러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 Ⅲ. 한국어의 진출과 학습 인기

#### 1. 조선어에서 한국어로

1956년 8월에 조선과 북베트남은 ‘문화 교류 계획서’를 교환하였다. 11월에는 ‘조선 문화 대표단’이 40일 동안 하노이를 방문해 예술

---

다. 교환가치는 소위 시장가치(market value, K. Marx, 1977)로서, 즉 영어처럼 언어를 배우기 위해 비용을 소비하는 등 타국어가 시장에서 교환되는 가치를 말한다(김희숙 2001: 334).

인, 문예회, 교육부, 대학 등과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 당시에 『조선어 소사전』, 『훈민정음』과 베트남의 『월불사전』, 『월중사전』 등이 교환되었다. 한국 역시 1956년에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 사이공(Sài Gòn, 현 호찌민시)에 공사관(公使館)을 개관하였다. 이 후 한국 종교 지도자가 방문하거나, 재난 원조, 스포츠와 예술의 친선 교류 등이 이어져왔다(윤대영 2013: 192-203). 1957년 말에 “(남)베트남에 한국어강좌”를 운영한다는 계획(경향신문 1957/11/05)과 1959년에 한국 대학이 남베트남 학생의 한국 유학을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었다(동아일보 1959/04/05).

조선어와 한국어가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것은 1956년경이며, 이후 남(한국-남베트남)과 북(조선-북베트남)으로 나뉘어 여러 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어와 조선어가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에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가 단절되었고, 전쟁 당시에 ‘남조선(Nam Triều Tiên) 또는 대한(Đại Hàn)군인’, ‘미국의 남조선 용병’, ‘적(敵)’으로 불리면서 고착화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90년대까지 이어져오면서<sup>3)</sup>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에 조선어는 우방국의 언어로서 보다 활발하게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베트남 전쟁 중에도 호찌민 주석은 베트남 인재를 외국유학길에 오르게 하였다. 1950년 조선과 북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학생의 북한 유학이 지속되었고, 그 영향으로 베트남에서 ‘조선어’에 능통한 전문가가 약 500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조명숙 2001: 80).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던 즈음에 베트남에 진출했던 상사주재원들은 대부분 ‘조선어’를 쓰는 현지 통역을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보다는 우방국으로서 조선을 더

3) 1990년 9월 경향신문 기자도 한국을 “남주탄(남조선)”으로 부르고 있음을 지적했다(경향신문 1990/09/21).

친숙하게 느꼈고, 언어 역시 한국어보다 ‘오랜 동지의 나라’ 언어인 조선어(북한 말씨)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조선어가 아닌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된 것은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개방 정책) 이후 한국과 베트남이 다시 외교관계(1992년)를 회복 하면서 부터였다. 한국이 베트남과 다시 수교하기 전에 한국은 주로 조선(북한)을 기준으로 둔 ‘남조선(Nam Triều Tiên)’으로 불리었다. 실제로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문에도 영문과 한글문서에서는 ‘대한민국 또는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됐지만, 베트남어 문서에는 ‘남조선(Nam Triều Tiên)’으로 쓰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정부는 수교 시 앞으로 ‘남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국명 표기를 요구하였다.

외교 관계가 회복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경제 교류였다. 수교 전 1983년부터 베트남과 간접적인 교역이 있었고, 1988년부터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과 경제 협력을 추진해왔다. 1992년 수교하면서 베트남 투자가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되어 금융 위기가 있던 1997년까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 기업 진출과 함께 1997년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의 바람 또한 베트남 내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베트남 전쟁 이후 고착되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 드라마가 소개되고 또 광범위하게 인기를 끈 국가이다(김수정 2013: 28). 한국 드라마의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한국 정부가 우호적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베트남 시청자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현지 한국 기업이 문화 마케팅 차원에서 적극 지원 했다(윤재식 2004: 71-74).” 예를 들어, 1997년 드라마 <의가형제>는 삼성이, 1999년 <모텔>은 엘지 화장품의 후원으로 방송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1990년대 후반 <느낌>, <첫사랑>, <아들과 딸> 등, 2000년대 초에는 <풀하우스>, <가

을동화>, <천국의 계단>, <대장금> 등이 TV드라마로 베트남 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다.

한국 기업의 진출은 한류의 진출과 관계가 깊다. “특정 나라에 대한 신뢰(trust), 공신력(credibility)부여, 믿음(belief)은 그 나라에서 온 사람과 제품에 대한 선호를 창출(김장현 2012: 5)”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한국 드라마 확산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한국어가 조선어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1993년 하노이 인문사회대학교에 한국학과가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되면서 한국어의 공식적 진출이 이뤄졌다. 정식 학과 과정은 1994년 국립 호찌민 인문사회 대학교에 처음 설립되었고, 뒤를 이어 2000년까지 5개 대학에 한국어과 또는 한국학과가 만들어졌다.

<표 2> 베트남 내 연도별 한국학과 개설 현황: 1993~2000

학교 기관	소속학부(학과명)	설립년도	설립지역
국립하노이 인문사회대학교	동양학부(한국학과)	1993 <sup>4)</sup>	북부
국립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1994 <sup>5)</sup>	남부
호찌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동방학부(한국어·한국 문화학과)	1995	남부
국립하노이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한국문화학부	1996	북부
홍방대학교	아시아태평양학부(한국학과)	1999	남부

4) 1993년 최초로 베트남 대학 내 한국학 부전공이 생겼고, 1995년 학과가 개설되었다.

5) 국립 호찌민 인문사회대학교에서는 동방학부 한국학과에서 2010년 한국학과로 승격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10일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사회과, 한국경제·정치·외교과와 같은 3개 전공학과를 포함한 한국학부로 개편됐다(연합뉴스 2015/03/4).

한국 문화 외교의 실행 기구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하 KF)이 1992년 설립 됐고,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KF는 베트남 학자에게 한국어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우십, 한국 관련 도서자료 및 한국어 교재를 보급하는 활동을 하였다(베한타임즈 2014/08/23). 호찌민 인문사회대(이하 호찌민 인사대)에는 1996년부터 국제협력단(KOICA)<sup>6</sup>소속 한국어 강사를 파견했고, 학과가 설립 된 직후에는 베트남에 유학 온 한국 학생, 1975년 이전 남북한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 사업차 이주한 한국인이 한국어를 가르쳤다(레 팡 티엠 2007: 3). 한국어 국외보급의 초기단계이다 보니 전문 한국어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한국어 교육 교재도 부족했다(조명숙 2001).

## 2. 한국어 학습의 확산: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한류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2014년 기준 신규 투자가 505건에 61억 2,803만 달러로 베트남 전체 투자 39.2%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Kotra 2014: 7). 대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산업으로 투자영역 확대 등이 이루어졌고, 북부 박닌(Bác Ninh)성과 타이응우옌(Thái Nguyên)성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휴대전화 제조 공장이 들어섰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4,042개이며(Kotra 2014: 3), 업종이 다양할 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한인 사회 규모 또한 대폭 확장되었다.

2014년 기준 베트남 내 외국자본 투자 순위에서 한국은 1~2위를 다투고 있다. 밀접해진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교류는 한국의 이미지

---

6) KOICA는 1991년 외교통상부 산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담당 기관으로 설립되,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한국어 강사 해외 파견 업무 맡고 있다.

를, ‘경제가 발전한 나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졌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한국 기업의 수와 한국 사람의 증가에 따라 노출빈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어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취업의 언어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언어로 좀 더 익숙해졌다. 한국 기업·회사 및 공장, 식당 등 한국 관련 경제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업종도 다양해졌다. 한국어와 관련한 취업 기회가 보다 넓어진 것이다.

경제 교류 활성화는 한류, 특히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으로 대거 수입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2000년 이후 호찌민 방송국은 정오와 오후 시간대의 대부분을 한국 드라마로 채웠다. 2004년 HTV9(Hanoi Television)의 한국 드라마 방영시간이 증가하였으며, HTV7에서는 19.8%까지 올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베트남인 11세에서 25세까지의 젊은 시청자의 64%가 한국 드라마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쓰영 반 민 2014: 278). 한국 방송 영상물에 대한 수입은 1998년 약 1천 달러로 출발하여, 2006년에는 1억 4,777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한국 드라마 내용에 대한 식상함과 “대중문화물의 흐름이 한국에서 동남아로만 향하는 일 방향적 현실(김수정 2013: 43)”로 인해 베트남 내 한국 드라마 인기는 2004년 <대장금> 이후 주춤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K-pop’이 200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베트남에서 한류의 유행은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2007년 11월 가수 비가 베트남에서 첫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2NE1, 빅뱅, 샤이니, JYJ 등의 K-pop 아이돌 스타의 음악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K-pop은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즐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베트남 가수들의 팬클럽조차 생성되지 못했던 베트남(이한우 외 2013: 29)에서 엘

범 및 아이돌 관련 제품 사 모으기, 한국식 팬클럽 활동하기, 아이돌이 나온 드라마 및 예능을 번역해 공유하기, 커버(cover)댄스페스티벌 참가하기 등과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 생겨났다. 지구촌 한류현황(KF 2013)은 Soshi(소녀시대), Sapphire Junior(슈퍼주니어), Bigbangvn(빅뱅), Hottest(2PM), T7VN(티아라) 등의 팬클럽을 소개했다. 한 한국어 구사자의 “샤이니, 다비치, 에이핑크 등 최신 유행하는 가수의 팬클럽도 많다”는 진술로 미루어보아 실제 더 많은 팬클럽 존재여부와 활동이 예상된다. ‘2015 K-POP 팬클럽 축제(K-POP Lovers Festival)’ 개최에 22개 팬클럽에서 약 8,200명이 참여한 소식은 이를 증명해 준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된 ‘한국 스타일’은 유행에 민감한 도이머이 세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산 화장품, 옷, 액세서리, 머리모양, 가전제품 등을 소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한국무역협회 2014). 현재 베트남에는 SCJ라는 CJ의 TV홈쇼핑 및 인터넷쇼핑이 운영되고 있으며, 압력 밥솥, 오쿠 등 한국에서 판매되었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끈기가 없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선호하는 차진 밥을 위해 고안된 압력 밥솥의 인기와 같은 부조화스러운 소비 풍토와 한국에서조차 싸지 않은 제품의 인기는 베트남 내 중산층 구매 욕구를 보여준다. 한류 초기의 ‘김남주식 화장’, 긴 생머리가 아닌 ‘짧고 노랗게 염색한 머리’, ‘한국형 미인 선호’에 따른 성형수술, 한국산 옷, 한국의 압력밥솥 구매 등은 “모방 소비문화의 확대”(이한우 외 2013: 45-47)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라마와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상품의 범람은 한국어 학습 욕구 또한 높아지게 하였다. 베트남 젊은이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 연예인을 알고,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읽고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또한 ‘취직이 잘된다’, ‘남

들보다 돈을 더 받는다' 등의 이야기를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네 언니 또는 고향 학교 선배에게 듣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베트남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어를 학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투자 러시와 한류 열풍은 한국어 학습 인기로 이어졌다. 열풍의 증거로 첫째, 한국어 교육시설이 대폭 늘어났다. 베트남 내 한국학·한국어과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대학에 신설되었다. 거의 매 해 학과가 개설된 것이다.

<표 3> 베트남 내 한국학과 개설 현황 2001~2014<sup>7)</sup>

학교 기관	소속학부(학과명)	설립년도	설립지역
하노이대학교	한국어과	2002	북부
락홍대학교	동방학부(한국학과)	2003	남부
달랏대학교	국제학부(한국학과)	2004	남부
다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2005	중부
바리아 붕따우대학교	동방학부(한국어과)	2006	남부
사이공관광문화예술대학교(3년)	언어학부(한국어과)	2006	남부
반히엔대학교	동방학부(한국학과)	2007	남부
후에외국어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2008	중부
투득기술대(3년)	언어학부(한국어과)	2011	남부
응웬땃탄대학교(3년)	외국어학과(한국어과)	2011	남부

중부 다낭(Đà Nẵng)시(2005년)와 후에(Huế)시(2008년)에도 한국학·한국어가 보급되면서 교육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한국학·한국어과 설립이 언어 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투자에 의한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남부의 호찌민시,

7) 각 대학의 한국학·한국어과 설립연도는 논문마다 1에서 2년씩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어 강좌가 생긴 시기와 한국어 전공이 생겨나는 시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나이(Đông Nai)성, 빈즈엉(Binh Duong)성 등의 지역에서 한국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북쪽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신규 한국어·한국어과 생성이 더뎠던 북쪽 지역에도 약 2~3개의 대학에서 한국어·한국어과 설립 예정이다.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한류가 인기를 얻으면서 사설어학원도 대폭 늘어났다. 2014년까지 연구자가 확인한 사설학원은 가나다어학당, 한베어학원, 코참한국어교실<sup>8)</sup>, 김치어학당, 한사랑으로 5곳, 한국정부시설은 세종학당(전체 7곳), 한국어교육원(1곳)으로 모두 8곳, 대학부설은 호찌민 사대 부설 어학센터, 호찌민 인사대 세종한국어학당, 빈즈엉대학교·하노이문화대학교·하노이 외상대학교·타이응웬 대학교의 어학원, 호찌민기술사범대학교와 한국동아대학교 협력 한국어센터, 타이응우웬 시립 경제재무대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협력 대구가톨릭대 한국어센터까지 총 21곳이다. 이밖에도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설어학원 및 대학교 부설 어학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역마다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도 한국어로 노동 이주하려는 노동자를 위한 기초 한국어 교실이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종교 시설에서 소규모 한국어 교실 및 과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sup>9)</sup>

한국어 학습의 확산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하 ‘토픽’) 신청자 수의

8) 2003년 말에 설립된 베트남 호찌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HCMC, KOCHAM)는 한국 공장의 베트남 노동자를 위해 2011년 9월 한국어교실을 개설했다.

9)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한 2012년 8월 한-베간 고용허가제 MOU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찌민 시에 있는 한 사설어학원에서 강사였던 한국어 강사 란(Lan, 여, 34세)은 “2012년 전에는 학원생이 1,200명 정도였는데, 한국 노동수출이 어려워지고, 한국 회사도 많이 파산하면서, 평균적으로 800명 정도”라고 전했다. 2014년 말 한국은 베트남과 다시 고용허가제 특별 MOU를 체결하였고, 고용허가제 문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공공기관과 사설어학원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겨냥한 강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이다. 토픽은 가장 권위 있는 한국어시험으로, 한국대학에 유학생을 선발하거나,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2004년부터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 채용 조건으로 토픽의 유무(有無)와 고저(高低)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 4개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2014년 4월 누적 지원자가 1,259,000명에 이르렀다. 지원자 국가별 순위는 2014년 기준 중국 50.3%(4만 8846명), 일본 17%(1만 6546명), 베트남 6.36%(6175명), 대만 5.48%(5316명)순이다. 전체 3위이자 동남아국가 내 1위라는 사실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한국어 학습의 여성화와 학습 열풍의 양면성

##### 1. “오빠의 언어”: 도시중산층 젊은 여성의 취향

1990년 후반 ‘국민드라마’라 할 만한 인기를 얻었던 <의가형제> 주인공 ‘장동진’의 호찌민시 방문은 베트남 내 한류의 시작으로 해석된다(김성란 2008: 62; KF 2013: 122). 한국 음악은 초기엔 드라마 OST를 통해 알려졌고, 2000년 중반부터 한국 아이돌의 음악과 문화가 베트남에 소개되었다. 한국어를 드라마가 아닌 음악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연구자가 면접한 1990년대 출생 구사자 중 대부분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팬이 되면서” 또는 “한국 노래에 빠지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 대학교의 한국학과 교수 민(Minh, 남, 36세)은 “학생들은 직업을 모르고(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취직이 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생 대다수가 한류 때문에 한국학과 온다”고 전했다. 한국어 구사자 홍(Hong, 여, 23세)의 말처럼

럼 “한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의 인기는 K-pop 아이돌”의 영향이 크다(KF 2013: 126-128).

한국어 학습은 대학 내 한국학·한국어과에 진학하는 것 외에 사설 어학원에서 이루어진다. 꽤 많은 수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들이 연구자가 일 했던 사설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초급 과정은 약 15~20명 정원으로, 총 6-8주 동안 주 3일 수업에 1시간 30분씩 진행된다. 급수가 올라가면서 수강료가 비싸지는데, 초급이 약 45불, 마지막 고급 단계는 약 230불이다. 2015년 하노이시, 호찌민시, 빈중성, 동나이성과 같은 1지역의 최저 임금인 월 142달러보다 한국어 고급 단계 수강료가 더 비싸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세종학당과 같은 한국 대학 연계 어학원 수강료와의 격차로 인해 2014년부터 초급이 약 75불로 상향 조정 되는 곳도 생겨났다. 수강료의 수준이 이러하다보니 직장인들을 제외하고는 수강료는 대체로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어학원에선 한국어 ‘초급’ 과정에 사람이 몰린다. 사설한국어학원 원장 투이(Thuy, 여, 41세)는 “(수강생) 대부분이 한류 팬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으면,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어서 대체로 초급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하였다. 구사자 짜(Tra, 여, 21세)는 “친구들하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귀여워, 미쳤어, 바보 등’ 간단한 말장난”을 자주 하며, 뚜이엔(Tuyen, 여, 23세)은 ‘OO오빠 사랑해요, 멋져요. 등’ 의 말을 쓰면서 논다”고 한다.

이처럼 한류는 새로운 구사자를 양산하는 역할 한다. 한국어를 지식 습득을 위한 것보다 ‘교감적 언어’(Phatic Communion) (Malinowski 1923)<sup>10)</sup>로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10) 교감적 언어사용은 Malinowski가 1923년 처음 도입한 용어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사되는 의례화 된 관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인사말이나 날씨 얘기,

한국어를 쓰는 K-pop 아이돌과 정서적으로 동일시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즉 이러한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 Gardner 1976:199)는 한국어 구사자를 증가시킨다. 정서적인 추종은 팬클럽 활동을 통해 좀 더 심화된다. 이러한 정서적 추종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특히 젊은 여성에게 한류가 한국어를 매력적인 언어로 만들고 있다.

#### <사례 01> 팬클럽 이야기

음악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2009년부터 활동했어요. 슈퍼주니어 팬클럽이에요. 한국가수는 대부분 팬클럽이 있어요. 저는 프로젝트도 참여해요. (팬클럽 활동) 매년 (베트남에) 한번 와서 참여해요. 음반사기 활동도 있어요...(중략)... 베트남에 있는 한국가수 팬클럽은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팬클럽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프로젝트’는 오빠들 선물사고 음식대접을 위해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한국어노래를 듣고 싶어서 (한국어) 배웠어요. 그리고 오빠들이랑 편지도 주고받고 싶어요. 프로젝트 할 때 편지 쓰고 영상편지도 보내고 해요. 팬클럽이 한국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어 하면 팬클럽 장(將)도 될 수 있어요. 팬클럽 장은 영어라도 잘해야 하고, 한국어를 잘하면 더 좋죠. (Ly, 여성, 24세)

K-pop의 인기는 ‘한국 팬 문화’를 베트남 사회에, 특히 도시의 젊은 층에게 이식시켰다. 한국에서나 볼 법한 분홍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같은 색의 풍선을 흔들며, 대열을 맞춰 한 곳에 앉아 있는 소녀시대 팬클럽의 모습은 한국만이 아니라 2014년 3월 호찌민시 한 공연장에서 목격된다. 베트남의 팬클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리(Ly)의 말처럼 한국 팬클럽에서 ‘베트남 지부’로 직접 관리 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준비 한다. 소위 ‘오빠’로

---

사회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격식체 말투 등이 이에 속한다.

단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면’ 팬 클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빠와의 소통을 위해’, ‘팬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빠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한국어 습득은 K-pop 아이돌 팬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위이자 ‘팬 심’ 발휘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어 습득은 한류를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장치가 된다. 한류를 즐기는 젊은이에게 한국어를 통한 교감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 역시 하나의 취향이 된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 경험은 집단적 기억과 취향을 공유한다는 특성을 띤다(김수정 2012: 33). 이 취향은 한국어과 교수인 번(Van, 여, 38세)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에 의해 즐겨진다. ‘오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비싼 공연을 관람하며, 오빠가 모델인 화장품을 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복제CD가 아닌 두 세배 이상 비싼 원본CD를 한국에서 공수해온다. 실제로 2014년 8월 말 베트남에서 열린 ‘JYJ Asia Tour Concert’ VIP좌석이 판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콘서트 VIP좌석 요금은 175(350만동)달러로 2015년 베트남 최저 임금보다 비쌌다.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취향의 집단공유는 도시 중산계층이나 젊은 층에서 주로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열기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한국어’와 ‘한국어 습득’은 문화 자본으로서 여성, 특히 도시 중산층 및 젊은 층의 취향을 구성함을 보여준다.

## 2. “여성의 언어”: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스러운 언어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는 여성이 많다. 연구자가 조사한 10개

대학의 한국학·한국어과 재학 중인 여학생은 모두 1,794명이었고, 남학생은 211명 이었다.<sup>11)</sup> 한 학년에 남학생이 1~2명이거나 전혀 없을 때도 있었으며, 대부분 최대 10명을 넘지 못하였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한국어 구사자 대다수가 여성인 것처럼 활용 직업 분야 대부분이 여성중심적인 업무인 비서, 통역, 서무 등이 차지하고 있다. 넘쳐나는 한국 기업 일자리 수요와 일단 한국어과를 졸업만 하면 취업이 보장 되는 베트남에서 남성이 한국어를 전공하는 비율이 적은편인 이유이다.

통역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직업이다. 현재 프리랜서 통역이 분야와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하루 80~100불선이다. 통역을 한 달에 2~3일만 해도 베트남 최저 임금을 훌쩍 넘는 금액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유동적인 업무시간, 많지 않은 업무량, 쉬운 이직, 그리고 높은 급여수준을 가진 통역은 베트남 여성에게 전략적으로 선택되는 직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역이 “안정성과 승진기회가 많지 않고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어서 남성에게 좋은 직업이 아니다(한국어 교원 Van)”고 한다. 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승진구조가 없는 편인 통역 업무는 장기적인 직업으로 하기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일 수 있다.

한국어 구사자 중 여성이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 또한 한국학·한국어과 재학중인 남학생에게 한국어 선택에 후회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흥(Hung, 남, 24세)이 다녔던 대학교는 2014년 3월 기준 전임강사 6명중 1명만이 남성이고, 재학생 중 여학생이

11) 연구자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베트남 내 대학의 재학생·졸업생·강사 수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시행하였다.

278명 남학생이 31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흥(Hung)이 학교를 다녔던 2009년에도 비슷한 실정이었다. 흥(Hung)의 남학생 동기는 4명이었지만, 2 명이 그만두고, 본인을 포함해 나머지 2명만 학교를 다녔다. 그는 “남학생이 둘이라 대학교 때 외로움을 느꼈고, (한국어 선택)을 후회한 적 있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같은 반에 있던 친구는 여성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었다. 타과 학생과의 교류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과 학생이 한국어과의 남학생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흥(Hung)은 자신을 ‘여성스럽다는 느낌’과 연결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대학 때도 주로 만났다고 한다. 같은 나이와 성을 가진 동료는 중요한 조력자이자 언어습득 파트너이며 이들과의 교류와 교감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 중요한데, 흥(Hung)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다.

한국어 구사자의 여성화는 한국어 학습과정에서 남학생의 불만을 가져오게도 했다. 흥(Hung)과 탄(Thanh, 남, 23세)은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배우는 한국어)표현이나 말투가 여자 같아져서 싫어요. 저는 남자처럼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배워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연구자 역시 베트남 남학생들에게 감탄사로 “어머어머!”라든지 여성스러운 제스처를 목격할 때가 많았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남학생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여성스러운 표현의 한국어와 억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학과에서 공부하는 여학생들조차 응(Dung, 여, 22세)처럼 “여자가 너무 많아서 여자 말투, 단어를 쓰게 되니까 남학생이 여자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식들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소위 “기를 못 펴고 살고”있

거나, “게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국학·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남학생들이 여성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학 교수 린(Linh, 여, 35세)은 “베트남에서는 남자가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면 욕을 먹는데, 한국 문화는 자유롭게 화장할 수 있는 문화”라고 평했다. 그리고 “‘김현중’이나 ‘장근석’처럼 화장하고 여성스러운 미모”를 자주 접하고 동경하게 되면서 남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15세기부터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아 왔다. 현재도 가부장적 사회의 특성을 보인다(유인선 2011: 12). 보통의 남성에게도 ‘게이 같다’는 표현과의 연관성은 불편함을 주기에 충분한데 베트남 남성에게는 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감정은 미래 한국어 남성 구사자에게 한국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한류에도 냉정한 자세를 갖게 한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한국학과의 남성 품귀현상은 한국어를 배운 남성 구사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국어 구사자 비엣(Viet, 남, 23세)은 학교 선생님이 “한국어를 배우는 남자가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취직이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2학년 때부터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많은 남학생들이 “남자는 힘이 세고, 일에서 주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서 여자보다 (취직이) 더 쉬울 것 같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많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고, 한국 회사에서는 남자들을 더 원할 것 같다”, “남자들이 더 많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 영업, 건설현장 감독, 공장 매니저, 서비스업 등과 같은 직업에선 한국어 능력을 갖춘 남성이 선호된다.

베트남 여성의 전략적 직업 선택에 따른 여성 편향적인 특징을 가진 한국어 활용 직업군과 한국어 구사자가 느끼고 있는 한국어의 ‘여

성스럽다'는 이미지는 남성 구사자에게 한국어 학습에 부담을 갖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가부장적 유교사회라는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한국어를 베트남 내에서 비주류언어로 머물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

## V. 반(半)주변부국가 언어의 양면성<sup>12)</sup>

### 1. “기회의 언어”: 중산층 삶 꿈꾸기

한국어과 교수 린(Linh, 여, 35세)은 한국학과 설립 초기 “신흥국의 언어가 주는 경제성”, “신설학과로 인한 장학금 및 교재 지원”, “소수 언어’로서 갖는 희소성”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가 선진국과 저개발국 모두에서 좀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Carreira & Armengol 2001) ‘도구주의적 목적’(Gardner 1985:133)으로 한국어가 습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 습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확대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베트남에서 약 4,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며, 베트남 내 머물고 있는 한인은 8천명을 웃돈다. 한국어 구사자들은 한국 기업, 한국인이 자주 오는 골프장, 여행사, 식당, 호텔, 공항 상가 등에서 항상 아쉬운 재원이다. 한국학과 교수 트영(Thuong, 여, 33세)의 말처럼 “한국어를 전공하면 졸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다.”

---

12) 세계체제이론(Hopkins and Wallerstein 1982)에서 세계경제가 중심부(core), 반-주변부(semi-periphery), 그리고 주변부(periphery)로 나뉘어져 있다는 전제에 입각한 한국의 위치를 반영한 표현이다.

<표 4> 베트남 산업평균 임금과 한국 기업 내 한국어 구사자의 평균 임금 비교

베트남 산업 평균 임금	구분	한국 기업 <sup>13)</sup>		비고
		회사	공장	
약 216불(4,721,000동)	고졸	-	150-300불	기본급+토픽급수 +면접 시 한국어 실력+경력에 따 라 급여변화
약 227불(4,966,000동)	초대졸	-	200-300불	
약 305불(6,675,000동)	대졸 이상	400~600불	400-600불	

\* ‘베트남 산업평균 임금’ 2014년 기준 베트남 노동사회부(MOLISA) 자료 참조.  
\* ‘한국 기업 임금’은 한국 회사(사무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한 22명의 월급에 기반  
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현지인은 남들보다 급여가 높다. 4년 제 대학에서 한국학·한국어를 전공하고, 토픽 4급 이상일 경우 한국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첫 월급은 약 400-500불이다. 한국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토픽 급수가 더 높으면 700-1,000불을 받기도 한다. 연구자가 만났던 한국어 구사자들 중 호찌민 인사대 졸업생 대부분이 초봉 400-500불에서 시작해 3-4년의 경력 후 700불, 능력과 일의 종류에 따라 1,000불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다.

남(Nam, 남, 29세)은 기술 관련 전문대를 졸업하고, 동종 업계에서 일하다가 베트남 중부 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해 다시 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중부 지역에 한국 회사가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선택했다. 남(Nam)은 “저는 삼성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500불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생활비, 교통비, 전화비, 유흥비가 150-250불(약 300-500만동) 정도 되니까...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려야

13) 표에 나타나는 ‘회사’와 ‘공장’은 베트남인 한국어 구사자가 구분하는 방식으로, ‘회사’는 은행, 보험 등과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화이트 컬러를 의미하고, ‘공장’은 도시 중심지역 외 에 있는 봉제, 부품 공장 등에서 일을 하는 블루 컬러를 가리킨다.

해서...”라고 말한다.

부모님이 고향에서 커피농사와 후추농사를 짓는 롱(Long, 남, 23세)은 “삼성은 두산보다 월급 더 많다. 두산은 200불(약 400만동)정도 받는다. 삼성은 (토픽)4급 있으면, 1200만동(약 600불), 5급이면 1400만동(약 700불)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남(Nam)과 롱(Long)은 월급을 위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의 두산보다 멀리 북부에 있는 ‘삼성’에 가고 싶어 했다. 그들이 받고 싶은 금액은 현재 베트남 최저임금의 약 2-3배 되는 금액이다. 부모님에게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였고, 한국어를 습득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기대처럼 베트남 평균 임금 기준보다 150-200불 높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유명대학 학국학과를 졸업한 빈(Vinh, 여, 28세)은 공무원 아버지와 야채 판매 자영업을 하는 어머니를 둔 2남 1녀 중 막내이다. 고향은 호찌민에서 차로 7시간을 가야 하는 고원지대이며, 고등학교 재학 시 수재소리를 들었다. 모교에서 유명 국립대에 2명 진학했는데, 그 중 한명이 빈(Vinh)이다. 그녀는 졸업 후 몇 년간 한국인과 함께 의류 사업을 했지만 최근에 정리하고, 현재는 한국 회사에서 750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사가 어려웠고, 투자용으로 구매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 취직을 했다. 빈(Vinh)의 사례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 이외에도 언제든지 평균 이상의 월급이 보장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옥(Ngoc, 여, 29세)은 얼마 전 대출을 해 고향에 집을 샀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서였다. 1,000불정도 되는 월급의 25%는 대출금으로, 또 다른 25%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적금으로, 나머지 50%으로는 생활비, 여가비(여행, 취미)로 지출한다. 그녀는 일 년에 1번

은 꼭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삶의 낙으로 한다. 응옥(Ngoc)에게 한국어는 부모님께 효도 하고, 미래를 준비 하며, 현재를 즐기게도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구사자는 빈(Vinh)의 말처럼 한국어를 배우면 “큰 부자는 아니지만, 중간정도로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어를 활용한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남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아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중산층 정도 수준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는 공장 노동자에게도 승진과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미래 직업 변화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 <사례 02> 한국어 능력과 현재의 직업 그리고 장래성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배워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내가 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중략)... 한국 사람이 호치민에 많이 있지만 통역이 많이 없어서 취직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중략)... 무료로 2개월 정도 배우고 한국 식당에서 돈 벌면서 계속 공부 했어요...(중략)... 그러다 한국어 공부 기회가 돼서, 2004년에 처음으로 목공공장 다니면서 통역 일을 하기 시작 했어요...(중략)... 결혼 하고 2년 정도 일을 그만 뒀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한국어 배운 게 아까우니까 일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다시 시작 했죠...(중략)...저는 토픽도 중급이에요. 사장님이 학원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 700불정도 받아요. 일반 노동자보다 많이 받고, 남편보다 더 많이 벌죠[웃음]...(중략)... 그냥 통역만 해서 언제까지 통역 할 수 있는지 생각 해 본 적이 없지만 이 회사에서 계속 (통역)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5-6년 뒤에 그만둘 생각이예요. 요즘에 한국말 아는 사람이 영화/드라마/책 번역 한다고 해요. 한국 책 번역하고 싶은데 아직 내 실력으로

모자라죠. (Lien, 여, 32세)

“고등학교만 졸업한” 리엔(Lien, 여, 32세)은 “한국어를 배운 후 큰 공장에 통역으로 취직해서, 다른 노동자들보다 심지어는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다.” “공장 사장님이 한국어 학원을 보내 줄” 정도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었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는다. 그래서인지 리엔(Lien)은 결혼을 하고 육이를 위해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시 한국어를 활용해 다른 직업을 얻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통역 일을 그만두더라도 영화나 책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 계획을 갖게 되었다.

리엔(Lien)은 1,000불을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 3명을 키우고, 시어머니도 모시려면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그녀는 고향에 한국 공장이 많이 없거니와 공장 통역만 해서는 1,000불을 벌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원하는 금액을 벌기 위해서는 두 잡(two job)이 필요하기에 그녀는 번역 일을 염두에 두고 번역 공부를 시작했다. 공장 통역에서는 쓰이지 않는 고급 한국어 문법이나 단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미래의 직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리엔(Lien)에게 한국어는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언어사용의 목적이 사회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Clyne 1997). 관광, 마케팅, 항공, 공공관계, 은행,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비즈니스 컨설턴트, 호텔업,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 언어 또는 다언어 사용자들이 승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Rassool 2007: 417-418)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의 블루 컬러나 화이트 컬러 모두에게 한국어는 보다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좀 더 나은 삶, 구체적으로 ‘중상층’을 꿈 꿀

수 있는 ‘기회의 언어’가 된다.

## 2. “좌절의 언어”: 반(半)주변부국가 언어의 한계

많은 베트남사람들에게 한국어는 ‘기회의 언어’이다. 하지만 한국어를 활용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좌절을 주는 언어’가 되기도 한다. 한국어를 통한 좌절은 첫째, 직장 생활과 관계가 있다. 직장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일들은 베트남 구사자에게 한국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 <사례 03> 일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언어 문제

예전에는 (한국) 매니저도 영어로만 (말)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들어온 후부터는 한국어로 전달하고, 통역시키고, 번역시켰어요. ...(중략)...그래서 한국어 모르는 직원이 불만이 많아요. 영어를 하는 직원이 80% 이상이니깐... (다른 직원들) 매니저랑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게 되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통역 때문에 오해도 생겨요. 예를 들어, 매니저가 어떤 직원에게 일을 지시했는데, 그 직원이 일을 안했을 때 매니저는 직원이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직원은 다시 통역에게 “니가 통역을 잘 못해서 매니저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니냐”, “너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우리 편 돼서 잘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뭐라고 해요 또 매니저가 지시했을 때 직원이 일을 안 하면, 통역에게 “(정확히) 알아 들었냐?”, “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매니저가 저에게 뭐라고 해요. (Ngoc, 여, 29세)

응옥(Ngoc)은 공무원 집안의 장녀이자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로, 졸업 후 큰 무리 없이 한국계 은행에 취직해, 4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녀의 회사 직원 중 1/3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 직원이다. 은행 시스템 및 회사 내 공식 언어는 영어라고 했지만 응옥(Ngoc)의

말처럼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면서, 또 한국인 매니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업무지시 언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면서 직원 관계에 불신이 생겨났다. 민족적 동질성을 내세워 좋은 방향으로 통역해 주기를 바라는 베트남 직원의 베트남사람 ‘편들어주기’ 강요는 중립적·객관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통역에게 곤혹스러운 상황과 업무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한국 직원 역시 업무와 관련해 “알아들었나?”, “제대로 알아보았나?”는 식의 의심과 재확인은 업무진행 속도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불신과 동료 사이의 반목을 만든다. 게다가 이러한 갈등은 민족적 무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민족 대 민족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회사차원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지양하려하지만 현실과 이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직장 내 빈번한 한국어 사용은 한국어를 업무에 지장을 주는 ‘민폐 언어’로 만들기도 한다.

한국어에 대한 회의는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 더 심해진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한국 동료 직원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 많은 개인적 부탁을 받게 된다. 응옥(Ngoc)은 “한국인 매니저는 공사 구분을 못해요. 옷 수선, 신발수리, 시계수리를 시켜요. 개인 비서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공부한거 아닌데, 정말 자존심 상해요”라고 말한다. 한국인 상사가 회사 직원을 “개인 비서” 또는 “심부름 하는 사람”으로 강등시키는 행위를 비판 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은 대우를 기대했던 한국어 구사자가 처한 이삿짐 나르기, 옷·신발 수선 심부름, 항공권·식당·자동차 예약, 상사의 자녀 숙제 봐주기 등을 해야 하는 현실은 한국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일으킨다.

#### <사례 04> 한국인 사장의 베트남사람 무시하기

특히 한국 사장님들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 자기 말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 ‘나 사장님이야’라고 한다....(중략)...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직원 부를 때도 ‘야’라고 한다...(중략)...베트남 온 한국사람 한국사회에서 못하니까 온 사람들이 많다. 이상한 사람도 많다. 사기꾼도 많다. 딴 친구들이 사기 많이 당했다고 한다. 사장님이랑 2개월 일했는데, 2개월 월급 안주고 한국으로 가버렸다...(중략)...(한국어 선택을) 후회보다 한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는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을,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Hien, 여, 26세, 직장 초년생)

또한 다짜고짜 “초면에 ‘야’라고 반말로 부르고(히엔 Hien, 여, 26세)”, 이름 대신 “멍청아”라고 불렀지만(빈 Vinh), 상사고 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한국 회사 현실에서 베트남 구사자들은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베트남에 와서 돈 벌면서 베트남 사람을 무시 한다”는 빈(Vinh)의 말처럼 직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 힘으로 누르려고만 하는 한국 상사의 태도는 한국인에 대한 실망감을 가져다준다.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우월의식에 바탕을 둔 위계의식은 민족적 범주까지 전이된다. 이러한 의식은 한국 사장과 베트남 직원의 관계에도 투영되어 한국인 상사가 좋은 대학 출신에 언어능력도 뛰어난 베트남 직원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 내 한국어 사용자들이 느끼는 실망과 인격적 모멸감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인에 대한 담론을 통해 극복되기도 한다. 히엔(Hien)의 말처럼 대부분의 한국어 구사자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일과 성공) 못하니까 온 사람이 많아서, 이상한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시를 받는 베트남 직원은 민족적 위계관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기보다 위의 사례처럼 사장이 베트남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한다. 히엔(Hien)의 베트남 내 한국인 이주민 ‘헐뜯기’ 행위는 경제적·민족적 우월감을 향한 저항이자 주체적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한국어를 선택하고 입사했지만, 결국 하는 일은 잡무와 상사의 개인 심부름이다. 승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문적이지 않은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인격적인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무시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어 구사자로 하여금 한국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어에 대한 좌절감은 만족감을 줬던 급여와 관련이 있다. 전설한 것처럼 한국어를 활용한 직업의 초임은 400-500불로 300-400불을 주는 일본어나 영어보다 높은 편이다. 그런데 높게 시작한 초봉에 비해 임금 상승은 높지도 빠르지도 않다.

응옥(Ngoc, 여, 29세)은 한국 회사에서 들어오기 전, 회사에서 경력을 좀 쌓으면 1,000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그녀는 지금 세금 빼고 거의 1,000불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그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요즘은 1,000불이 아주 큰 돈 아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씩 급여 상승이 있고, 올해는 70불이 오르긴 했다. 응옥(Ngoc)은 급여가 크게 오르지 않는 회사 상황에서 그녀가 원하는 금액(약 2,500불)을 받으려면 지금 회사에서 “죽을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대답을 내놓기도 한다. 한국어 구사자 스스로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좋지만, 결과가 처음만큼 긍정적이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었다.<sup>14)</sup>

14) 베트남 직원의 급여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한국 회사 인사 관계자들은 한국어 구사자 베트남 직원의 기대보다 못한 업무능력과 의사소통에서 오는 한계를 든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국 회사 관계자들은 한국어 전공자 채용을 줄이고 영어 전공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렇지만 베트남에 진출 해 있는

응옥(Ngoc)의 회사는 규모가 있는 회사 이어서 적게나마 사원 복지 및 시간외 근무 수당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이 있지만, 소규모 회사 및 서비스업계 한국 회사는 이마저도 제공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소규모 한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국어 전공 학생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불만사항은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퇴근을 사장의 눈치를 봐서 해야 하는 상황, 당연시 하는 야근, 그리고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이다.

안(Anh, 여, 27세)은 “한국 사장은 제 시간에 퇴근 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장이 퇴근 안했는데, 직원이 퇴근 하는 것을 베트남 사원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안(Anh) 역시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지만, 야근이 필요 없는 데도 사장이 퇴근하지 않아서 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갖는다. 미국회사나 일본회사처럼 시간 외 근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한국의 ‘기업 문화’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 회사의 급여와 근무환경은 베트남 한국어 구사자에게 남들보다 높은 임금과 합리적이고 좋은 환경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할 것이라는 베트남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다.

셋째,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들의 좌절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상의 위계와 관련 있다. 쩡(Trang, 여, 27세)은 동생과 어머니의 지병으로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 대학을 포기하고, 혼자 독학하다시피 한국어를 배웠다. 이는 분의 소개로 한국 가정 상주 가사 도우미로 1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은 한국 가정과 문제를 만들었고, 그 이유로 한국어를 그만 배울까도 생각했다.

---

한국 회사 직원의 부족한 영어 및 베트남어 실력은 한국어 구사자의 채용 축소를 어렵게 한다. 게다가 현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실에서 대학만을 졸업해서는 한국 회사 전문업무용어를 이미 숙지하고 있거나, 막힘없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힘든 일이다.

그 후 하노이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1년간 일을 하면서 한국어과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유명사립대 한국어과에 입학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바로 베트남 진출 한국 화장품회사에 입사 했다. 급여는 약 600불 정도로 초봉으로는 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며, 통역·번역 능력을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현재 회사 생활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쩡(Trang)은 “회사에서 저만 영어 못하고, 다들 영어로 업무 이야기도 하고 농담 할 때마다 혼자 바보가 된 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인 매니저에게 “한국어만 잘하면 안 되고, 영어도 잘해야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충고를 듣기도 했다. 그녀 스스로 승진과 직장 동료 관계를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응옥(Ngoc) 역시 단순히 한국어 통·번역이나 비서 일을 하는, 즉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영역을 키우고,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영어를 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영어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임을 한국어를 활용하면서 확인받게 된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 또는 공장의 업무가 한국 외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공장 등 사업 대상에 따르겠지만) 일이 진행되는 공식 언어는 영어와 베트남어이다. 즉, 업무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한국어는 그 교환가치가 적다. 한국어의 쓰임세에서 공적인 성격이 약화되는 상황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모두에게 베트남 내 한국어의 위상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한다.

베트남 한국어 구사자들의 이러한 생각의 변화에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국인 스스로가 규정하는 한국어와 영어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인이 영어를 한국어보다 더 필요한 언어

이자 중요한 언어로 바라보는 인식은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에게 영어를 더 잘해야 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영어를 더 배우라고 권유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어가 가지는 언어상의 국제적 위상과는 별개로 한국 회사와 한국 사람이 인지하는 언어상의 중요도가 베트남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어를 냉담하게 바라보게 한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는 기대했던 것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한국어의 의미와 베트남 내 한국어의 언어적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이 한국어 구사자에게 밀바닥 인생을 살게 할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어를 습득하면 베트남 최저 임금에 2~3배 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적인 좌절을 경험한 베트남인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만들고 부여하는 한국어의 이미지와 위상을 수동적 차원에서가 아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즉,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베트남사람들에게 습득되고 활용되면서 ‘기회를 줌과 동시에 좌절을 주는 언어’이자, ‘교감어로서 기능을 하는 오빠의 언어’ 이면서 ‘여성의 언어’라는 중층적 위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상들은 ‘반(半)주변부국가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특징짓는 요소들로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 VI. 맺음말

이 연구는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의 사례를 통해 한국어 학습열풍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과 활용과정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반(半)주변부국가 언어라는 한국어의 언어적 위계(hierarchy)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

인 속에서 베트남 학습자에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가 베트남에 진출해 유행하게 된 거시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했던 주된 궁극증은 베트남인 한국어 구사자들이 ‘한국어가 인기가 있고’, ‘한국어와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한편으로 한국어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내리는가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한국어 구사자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와 인식, 한국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살펴봤다. 실제로 한국어를 활용하는 장(field)에서 한국어 구사자가 겪게 되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경험이 한국어의 베트남 내에서의 의미와 언어적 위계를 재구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민족지적 기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950년대 한국과 남베트남 그리고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와 함께 한국어가 베트남에 유입되었다. 한국어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시기를 지나 베트남과 한국의 재수교 이후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하고 K-pop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베트남에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가 양산되었다. 대학 내 한국어학과와 사설학원이 지속적으로 신설되는 등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외국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오빠의 언어’로서 ‘있는 집 자녀의 문화적 취향’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진 누군가에게 ‘기회의 언어’가 되기도 하였다. 즉,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젊은 중간계층의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Gardner 1976: 199) 목적으로 배우게 되는 교감적 언어(Phatic Communion)(Malinowski 1923)이자, 세계화 속에서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적 언어(Gardner 1985: 133)라는 이중적 특성이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자가 한국어를 활용하는 장(場)에서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 경험은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와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게 만들었다. 가부장제적 특성이 강한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자에게 “여성스럽다”는 이미지가 붙고, 한국 기업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하며, 한국 기업과 한국인 상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만들었다. 한국어의 국제적 지위가 주는 한계를 깨달음과 동시에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면서 많은 한국어 구사자들이 한국어 습득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가 가지는 언어적 위계와 무관하지 않다. 언어는 우열이 없다는 촘스키(Chomsky)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외부적 요소에 의해 고급(Prestige) 언어와 저급(Stigma) 언어, 또는 강한 언어(Powerful Language)와 약한 언어(Powerless Language)로 구별된다(김희숙 2001: 328-329). 베트남의 한국어 구사자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칼베(2000)가 말하는 언어들 간의 중층적 위계와 필립슨(Philipson 2000)이 말하는 언어 제국주의를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취향으로 한국어를 인식하는가 하면, 취업 전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모욕감을 받게 하는 한국어에 대해 스스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위상과 언어적 위계를 재인식하였다. 즉, 한국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된 베트남 구사자가 인식하는 한국어의 이미지와 특징들은 반(半)주변부국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인 한국어 구사자, 한류, 한국 기업 투자, 언어의 위계, 반(半)주변부국가 언어

〈참고문헌〉

- 김명권. 2011. “몽골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그 발전방향 제언.” 『한어문교육』25: 451-477.
- 김수정. 2012. “동남아에서 한류의 특성과 문화취향의 초국가적 흐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1): 5-54.
- 김성란. 2008. “베트남에서 ‘한류’에 대한 표상적 분석-여성 표상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2:61-79.
- 김장현. 2012.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 김진수. 2003. “프랑스의 식민지 언어정책: 베트남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8: 1-19.
- 김희숙. 2001. “한국어 세계화와 영어공용화론 시장원리문제.” 『한국어 의미학』 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2014. 『2014년 베트남진출기업현황 및 베트남 FDI』.
- 레 쩡 티엠(Le Quang Thiem). 2007. “베트남 한국학의 현황과 미래.” 베트남 국립하노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방학부.
- 로버트 필립슨. 2000. “영어 제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ске 엮음/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파주: 돌베개.
- 로스 킹(Ross King). 2009. “한국어의 세계화와 미래: 북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국립국어원.
- 루이-장 칼베. 1974. “식민주의와 언어.” 이병혁 편저, 1986, 『언어사회학 서설: 이데올로기와 언어』, pp. 132-164. 서울: 도서출판 까치.
- \_\_\_\_\_. 2000. “모어, 국민어, 국가어-언어생태학을 위한 중력 모델.”

-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pp. 35-50. 파주: 돌베개.
- 민현식. 2005.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2(2): 98-138.
- 베트남 통계청. 2015.
- 박영순. 2010. “[기조강연] 세계 속의 한국어학과 다언어교육의 본질.” 『세계한국어문학』. 3: 13-45.
- 샤스키아 사라스와티. 2014.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류에 관한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의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향근. 2013. “아프리카·중동의 한국어 교육.” 『세종학당재단 출범 기념 국제 포럼: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의 도약』.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2013년 5월 14일 09:30-17:00).
- 심상민. 2011. “호주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이 현황.” 『한국언어문화학』. 8(1): 65-82.
- 안여경. 2011. “우즈베키스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 및 특징.” 『한어문교육』. 25:479-493.
- 양지선·박동희. 2012.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제언.” 『한국어교육』. 23(3): 133-157.
- 유인선. 2011. “유교가 베트남에서 국가이념으로 성립되는 과정.” 『수완나부미』. 3(1):1-23.
- 윤용수. 2011. “레바논의 프랑스어 수용 양상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15(1).
- 윤대영. 2013.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87:187-222.

- 윤재식. 2004. 「한류와 방송영상 콘텐츠 마케팅: 베트남 태국 시장 확대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응웬 티 레나. 2014. “베트남 대학교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현황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매뉴얼 윌러스틴. 2005. 『윌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 이한우. 2007. “베트남에서 한류와 한국학 진흥.” 『동아시아 정세분석』. p. 83-88.
- 이한우·레 티 화이 프엉. 2013. 『베트남 한류를 보는 한국과 베트남의 시각』. 도 옥 루이엔 옮김. 이매진.
- 장용수. 2010. “시장전체주의와 한국어교육의 정체성.” 『한국어 교육』. 21(4): 229-253.
- 전성운. 2008.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과 링구아 프랑카의 가능성.” 『아태연구』. 15(2):163-178.
- 조명숙. 2001.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언어학』. 19: 77-93.
- 쯔영 반 민(Truong Văn Minh). 2013. “호찌민시 방송국과 TV드라마(영화)를 통해 베트남에 유입된 한류 과정.” 2013 CBNU-VNU Conference(Viet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2013년 전북대학교 인문대학-베트남 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 학술대회(2013년 12월).
- 최인나. 201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문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어문화학』. 23: 45-73.
- 하인숙. 2009. “베트남 남부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 호찌민국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외국어정보대학교, 홍방대학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9(3): 101-135.
- 한국국제교류재단(KF). 2013. 『지구촌 한류현황』.
- 한국무역협회. 2014. 『베트남 화장품 시장 보고서』. 해외마케팅지원

본부.

- Carreira, M. C. & R. Armengol. 2001. "Professional opportunities for heritage language speakers." in J. K. Peyton, D. A. Ranard, & McGinnis(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n national resource*(pp. 109-142). McHenry, IL, and Washington DC: Delta Systems and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Clyne, Michael & Sandra Kipp. 1997. Trends and changes in home language use and shift in Australia, 1986-1996.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18(6): 451-473.
- Denham, P. 1992. "English in Vietnam." *World Englishes*, 11(1): 61-69.
- Jung, S.. 2011. *K-pop beyond Asia: Performing Trans-nationality, Trans-Sexuality, and Trans-textuality*.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류 2.0 시대의 진단과 분석 학술 세미나’ 발표문(2011.8. 17).
- Holborow, M.. 1999. *The Politics of English. A Marxist View of Language*. London: Sage.
- de Swaan, A. 2001. *Words of the world: the global language system*. Cambridge: PolityPress.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 Le Ngoc Tra. 2008. *Mot so van de cua giao duc Viet Nam trong voi canh toan cau hoa*(Some educational problems of Vietnam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Vien Nghien cuu Giao duc Truong Dai Hoc Su Pham Thanh pho Ho Chi Minh*.
- Ngan Nguyen. 2012. "How English has displaced Russian and other Foreign Languages in Vietnam since "Doi Moi".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23).

Nguyen Thien Giap. 2006. Chinh sach ngon ngu o Vietnam qua cac thoi ky lich su(History of Vietnam's language policies). Ngon Ngu.

Pham Minh Hac. 1995. The education system of Vietnam. In D. Sloper, & Le Thac Can.(eds.). Higher education in Vietnam: Change and response. p 41-61. New York: St. Martin's Press.

Rassool, Naz. 2007. Global Issues in Language, Education and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Postcolonial Countries, Multilingual Matters LTD, Clevedon-Buffalo-Toronto.

〈기사〉

경향신문. 1957. “「베트남」에서 한국어강좌.”『경향신문』. 11월 5일.

경향신문. 1990. “통일현장을 가다(11) 베트남[5].”『경향신문』. 9월 21일.

동아일보. 1959. “베트남 학생 육명에 장학금 서울대학등 서. 『동아일보』. 4월 5일.

베한타임즈. 2014. “한국-베트남 관계 발전의 초석 다지.”『베한타임즈』. 8월 23일.

연합뉴스. 2015.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 한국학부장"한국학 허브 만들겠다."『연합뉴스』. 3월 4일.

〈사이트〉

“베트남 2015년 최저 임금 전년 대비 13.2%이상 증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nj10&logNo=220354334019>)

반(半)주변부국가언어의 경계 넘기: 베트남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261

“FDI bất động sản: Hàn Quốc vẫn "cầm cờ”” (Báo Xây Dựng điện tử- Cơ quan của Bộ Xây Dựng 2013/03/18)

<http://www.baosexaydung.com.vn/news/vn/bat-dong-san/fdi-bat-dong-san-han-quoc-van-cam-co.html>

(2015.06.30.투고, 2015.07.13.심사, 2015.07.31.게재확정)

<국문초록>

반(半)주변부국가 언어의 경계 넘기  
: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육수현  
(전북대학교)

이 연구는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사례를 통해 한국어 학습열풍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과 활용과정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반(半)주변국 언어라는 한국어의 언어적 위계(hierarchy)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속에서 베트남 학습자에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탐구하였다.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했던 주된 궁금증은 베트남인 한국어 구사자들이 ‘한국어가 인기가 있고’, ‘한국어와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어에 대해 냉담하고 객관적 시선을 갖는 것인가 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재수교가 있었던 1992년이 지나고 1990년 후반부터 불었던 드라마 한류와 한국 기업 진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거세진 K-pop을 중심으로 한 신(新)한류와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 진출 확대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한국어 구사자가 생겨났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K-pop 아이돌 오빠의 언어’로 소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며, 있는 집 자녀의 문화적 취향이 되기도 하고, 성공

이라는 목표를 가진 누군가에게 ‘기회’로 인식되어 경제성을 담보한 언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가 “여성의 언어”라는 이미지, 한국어 활용에서 오는 불이익, 한국 회사와 상사가 주는 실망감, 한국어의 국제적 위치에 따른 활용 범위의 한계, 커져가는 영어 습득 압박은 한국어 구사자에게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어 습득은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자본으로서 역할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의 요인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위상과 관련이 있으며, 반(半)주변부 국가인 한국의 위치와도 관계되어 있다.

**주제어:**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 한류, 한국 기업 투자, 언어의 위계, 반(半)주변부 국가 언어

<Abstract>

## Overseas expansion of Semi-periphery country language

:A case study on Korean speakers in Vietnam

Su-Hyun You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the background of that learning Korean is getting popular among Vietnamese by looking into some case studies about individuals who learn Korean in Vietnam, and to investigate how Koreans can be absorbed by them in the process of learning Korean and utilizing it. Especially,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how the hierarchy of Korean, which is considered as the language of Semi periphery country, could influence Korean speakers in Vietnam in the context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key question is that the reason why Korean speakers in Vietnam might objectively assess, or even consider it negatively, even though they want to say that “Learning Korean is popul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Korea is very special.”

In Vietnam Korean can be considered as cultural tastes being enjoyed by children from a rich family, and can b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ward people who aim to be successful. In the meantime many teenage

girls admire Korean as ‘language of K-pop idols.’ However, on the other hand, some Korean speakers seem to feel skepticism about ‘learning Korean’ because of a certain image occurred by learning Korean, like a gay, any disadvantages from using Korean, being disappointed due to bad treatment from a Korean senior or Korean company it-self, the limitation of using Korean in the international arenas, and being suffered from pressure to learning English instead of Korean.

Learning Korean could play a role as a capital which can make it better in terms of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Vietnam, but still it might be limited in the end. The main reason of this limitation might be related to ‘national image of South Korea.’

**Key Words:** Korean speakers in Vietnam, Hallyu or Korean wave, Korean company's investment, hierarchy of language, Semi-periphery country language

